

전남교육청, 4차산업혁명시대 창의융합인재 육성 박차

여수정보과학고에서 12개종목 상업경진대회 호남원예고에서 19개종목 영농학생진진대회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전남 2020년 직업교육의 향연이 펼쳐진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6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2020년 전남상업경진대회'를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 '2020년 전남영농학생(FFK)전진대회'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업경진대회는 전남상업교육회, 한국생산성본부, 여수상공회의소가 후원하고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주관해 열리며, 도내 상업계열 특성화고 20개 교 256 명의 학생들이 12개 종목에 걸쳐 실무능력을 겨룬

다. 12개 종목은 회계실무, 창업실무, 사무행정, 전자상거래실무, 비즈니스영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금융실무, 취업설계프리젠테이션, 세무실무,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경제 골든벨 등이다.

전남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농업교육협회가 주관해 열리는 전남FFK전진대회는 도내 농업계고 9교 194명이 참가해 19종목에서 실력을 뽐낸다. 종목은 전공경진 분야(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가공, 농업기계, 농산물유통, 조정산림자원), 과제이수

분야(농산물마케팅 등 4종목), 실무능력분야(화웨이장식, 제과제빵, 조리, 조경, 농기계정비, 애견미용), FFK골든벨 등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 개회식과 시상식을 폐지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한 가운데 추진한다.

이번 전남대회는 제10회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제49년차 전국영농학생(FFK)전진대회 예선대회를 겸한다. 전남상업경진대회 종목별 금·은 수상자(1위~3위) 각 3명에게는 전국대회 출전권이 부여되며, 전남 FFK전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

생 72명도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얻는다.

2020년 제10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며, 2020년 제49년차 전국FFK전진대회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무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졸업 후 4차 산업혁명시대 리더로서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목포교육지원청, 퇴근 후 SW교원연수 진행

"3D프린터 수업적용, 초·중등 온라인 수업의 실제"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점)은 6월 23일, 25일, 30일 3일간 자발적 참여교원 30명을 대상으로 목포SW교육체험센터에서 'SW교원연수'를 슬기로운 교사 생활을 퇴근 후 시간인 1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생방향 온라인학습이 점점 보편화됨에 따라 SW교육 도구를 다루는 기술과 블렌디드(온라인학습과 면대면 학습이 혼합된 학습) 교수 방법 등 교사의 SW역량과 자신감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온라인학습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수업 방법과 정보화 기기 운영에 초점을 두고 목포원격교육지원단과 목포SW교육체험센터 SW교육 연수를 병행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6월 첫째 주에 운영한 '교원 SW교육 '역량의 세계' 연수'에 이어 포스트코로나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창의·융합 SW교육 역량 강화에 방향을 두고 '3D프린터의 수업 적용', '초·중등 온라인 수업의 실제'라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특히, '초·중등 온라인 수업의 실제'는 목포원격교육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

는 초·중등교사가 직접 생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체험했던 내용들과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함께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적 거리두기'와 '등교수업 지점의 닫'로 퇴근 후 소규모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심과 열정이 교원의 자발적 연찬으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향후 소수의 교원들이라도 요구하면 연수과목을 개설하고 강사비 및 인력풀을 지원 하는 등 SW 교육 연수 운영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순천대, 제3기 '취업 잡고 서포터즈' 발대식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고용정책 홍보대사로 활약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최근 산학협력관 1층 과무홀에서 대학일자리센터가 주관하는 제3기 취업 잡(Job)고(G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총 12명의 서포터즈는 2021년 2월까지 대학일자리센터와 인재개발본부에서 진행하는 교내·외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안내, 행사지원 및 정부 청년고용정책과 청년 취·창업관련 정책을 SNS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활동을 수행하며 순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청년고용정책 홍보대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취업 잡(Job)고(Go) 서포터즈는 도비 지원으로 매년 5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한 달 단축된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전체 서포터즈에게는 활동 지원을 위해 매월 소정의 장학금(5만 원)을 지급하며, 각종 일자리 프로그램 및 취업 추천 선발 시 우대한다. 또한 연말에는 활

동 우수서포터즈를 선정해 포상금을 전달한다.

제 3기 서포터즈 여다솔(사회복지학과) 대표 학생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함께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과 취·창업 정보 제공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순천대학교 양숙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각자의 끼와 재능을 접목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춘 홍보 활동으로 지역 청년과 재학생들에게 진로 설정과 취업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학일자리센터 인지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대학일자리센터는 서포터즈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 예산학교' 성료

광주시교육청이 시민참여 예산위원 및 시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시민(20명 내외)을 대상으로 15·22일 2차시에 걸쳐 '2020년도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차시에서는 '내가 궁금한 참여예산'을 주제로 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제, 광주교육 재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 2차시에서는 '내가 해보는 참여예산'을 주제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예산학교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 예산센터' 최승우·김민철 강사가 함께했다.

시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이번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사업제안서도 직접 작성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시민참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제안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시민참여팀(380-4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호 기자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랜선싱어 20인' 선정

언컨택트 예술 새 장르 개척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정해자)은 온라인 수업과 지속적인 개별화 학습 지속으로 인해 면대면 문화향유 기회가 단

절된 학생들에게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6월 3일부터 6월23일까지 '도전! 전남학생 랜선싱어'를 개최하였다.

'도전! 전남학생 랜선싱어'는 어디서든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표현의 기회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전남의 소중한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전남의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였고, 직접 노래한 영상을 핸드폰 등으로 촬영하여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 올리면 영상만으로 비대면 심사로 진행되었다.

